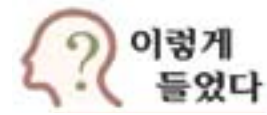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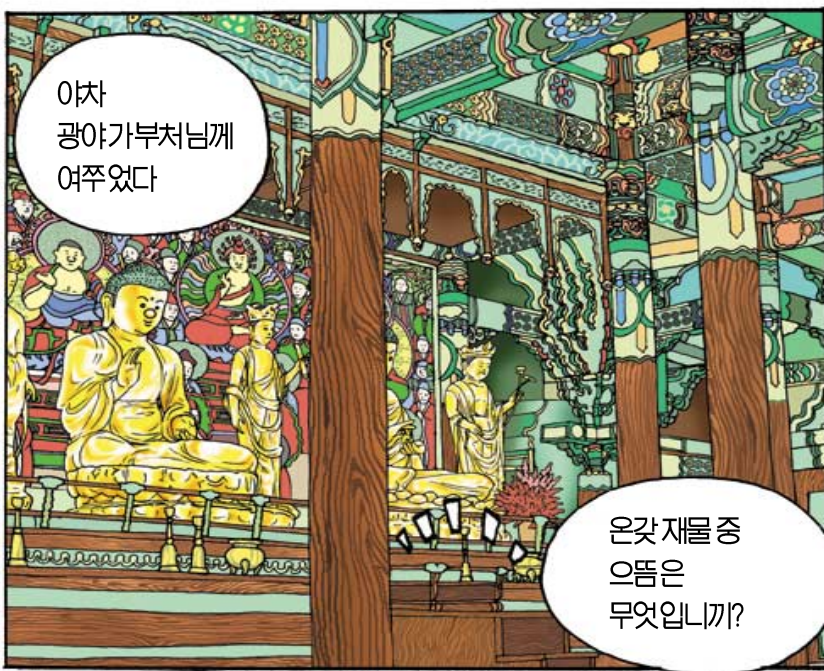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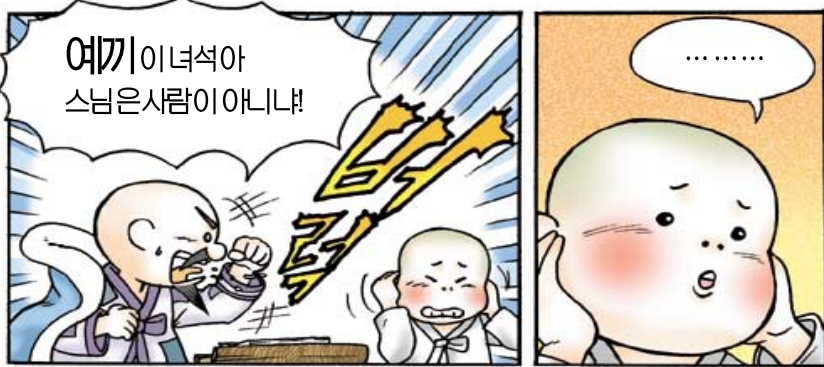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화)

“믿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출전 : 별역잡아함경 제15:325경:2-482화>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광화문의 촛불

무엇이 저 많은 사람을 모이게...

2002년 6월부터 시끌벅적하던 광화문의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선재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손에 촛불을 들고 묵묵히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월드컵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을 느낀다. 무엇이 저 많은 사람들을 쌀쌀한 날씨가 부끄럽도록 모이게 하는 것일까?

윤금이 씨 사건이나 노근리처럼 그동안 미궁을 때문에 생긴 사고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직업여성(?)'이 관련되었거나 사격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선재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아니었다. 선재 주변에는 직업여성도 없었고 선재가 사는 곳이 사격장 근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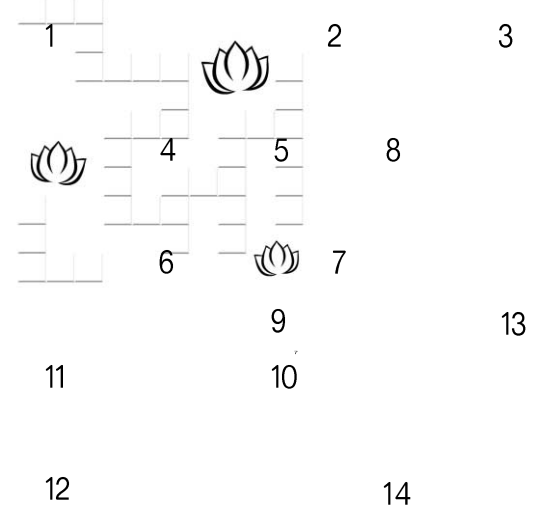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생이다. 선재의 여동생도 여중생이었던 적이 있었고 선재의 어머니와 이모도 그랬다. 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선재의 딸도 여중생이 될 것이다. 미선이의 효순이의

죽음이 이제 선재의 일이 되어버린다. 붉은 악마의 발자국 뒤로 이제는 두 여중생을 향한 자비의 촛불이 뒤따른다. <대지도론>은 자비에 대해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慈)이고 중생의 고통을 연민하고 동감해서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비(悲)"라고 설명한다.

또 <수타니파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정"을 자비라고 설명한다. 선재는 <수타니파타>의 설명이 더 와 닿는다. 보살이 성불을 미루고 중생으로 남는 것은 두 여중생의 죽음을 보는 선재의 마음과 같다. 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언제 자식을 내 몸처럼 여기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이번 주말에는 스스로에게 기쁨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선재의 어머니 같은 촛불보살들께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공양해야겠다.

■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회 연합)



가로

1.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법보사찰 2. 신라 진평왕때 원광법사가 화랑에게 준 다섯가지 교훈 4. 음력 10월 16일에서 이듬해 1월 15일까지 스님들이 선방에 모여 수행하는 것 6. 엽불을 하거나 절을 할때 돌리면서 수를 세는 법구 7.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또는 불설이 아닌 경전을 일컫는 말 10. 악마, 마왕을 뜻하며 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를 통칭하는 말 12. 운주사에 있는 많은 탑과 불상을 일컫는 말 14.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전각, 지장전, 시왕전이라고 함.

<지난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들었던 삼매, 해인정이라고도 함 3. 60갑자중 암파해인 율해를 가리키는 말 5. 보통 출가하지 않은 남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 6. 엽불을 하기 위해 사찰내에 만들어 놓은 경우 8. 승만부인이 석존께 자기 사상을 여쭙는 것을 내용으로한 경전 9. 정명(淨名)으로 번역되는 부처님 속가 제자 11. 33천중 하나로 부처님이 이곳 내원궁에서 현세로 내려오심 13. 선의 종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뜻함